

조선초기 主氣說의 창시자 徐敬德

朴星來 <한국외대 인문대학장 / 과학사>

「松都三絶」로 유명

'개성(開城)의 세가지 명물'이란 무엇일까? 5백년전 송도(松都)의 명기 황진이(黃眞伊)는 개성을 대표하는 세가지 명물로 박연폭포, 황진이 그리고 서화담(徐花潭)을 꼽았다. 이것이 소위 '송도삼절(松都三絶)'이다.

황진이라면 역사에 남은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당대의 명물이었던 것 같다. 그녀의 매력앞에 30년 벽만 보고 수도했다는 지족선사(知足禪士)는 과계하고 말았건만, 서화담은 그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혹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화담은 이름을 서경덕(徐敬德)이라 했던 조선 초기의 대표적 자연철학자였다. 그의 학문내용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순수과학 특히 이론물리학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부는 이치와 온천이 뜨거운 까닭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물리학에 가까운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몹시 가난했던 그는 자주 들에 나가 나물을 뜯어다가 끼니를 잇는데 도움을

줘야 했다. 한번은 종일 들에 나갔다가 돌아온 어린 서경덕이 나물을 조금밖에 뜯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하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몇일째 똑같았던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물을 뜯다가 새 새끼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땅에서 한 치밖에 날지 못했고 다음날에는 두 치, 또 다음날에는 세 치, 이처럼 점점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어서 생각에 빠진채 나물은 얼마 뜯지 못했던 것입니다.”

43세대 生員試 합격

그의 공부하는 태도는 이처럼 혼자서 깊이 생각에 빠지는 방법을 통해 이룩된 것이었다. 지금의 개성 화정리(禾井里)에서 1488년 2월17일 아버지 서호번(徐好蕃)과 어머니 한씨(韓氏) 사이에 태어난 그는 양반집안이었으나 몇대째 이렇다 할 벼슬자리에 나간 선조가 없었던 가난한 집안이었다. 기록에 의

하면 그는 43세에 이르러서야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일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응시해야 할 진짜 과거랄 수 있는 대과(大科, 또는 文科)에는 응시하지도 않았다. 혹시 집안의 퇴락과 그의 과거기피증과도 무슨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경덕은 특히 그의 만년에 개성의 교외 화담에 살았기 때문에 화담(花潭)이란 호를 얻게 되었는데 자를 가구(可久) 또는 복재(復齋)라 했다. 18살 되던 1508년 서경덕은 「대학」(大學)을 읽고 스스로 그 책에 써 있는대로 격물(格物)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부하려는 주제를 큼직하게 써서 벽에 붙여 놓고는 불철주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 글자만 쳐다보면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 의미를 스스로 어느 정도 깨우쳤다고 자신이 선 다음에서야 그는 다른 제목을 바꿔서 써 붙이고는 같은 명상을 반복했다. 그는 21살 때에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금으로 치면 신경쇠약증에 걸린 일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공부태도 때문이었을 것 같다.

이런 연구과정을 통해 그가 얻은 결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바로 우주를 가득채우고 있는 기(氣)라는 사실이었다. 조선시대에 크게 성했던 성리학에서는 이(理)와 기(氣)를 기본으로 말했지만, 바로 기야말로 가장 중심적임을 강조한 학자는 이 땅에서는 서화담이 처음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조선의 주기설(主氣說)의 창시자였던

셈이다. 그후의 우리나라 유학계는 이황(李滉:退溪)이 지배하여서 주리설(主理說)이 더 성했다고 보이지만 서화담의 주기적(主氣的) 태도는 울곡(栗谷:李珣)을 거쳐 실학파의 여러 학자들 특히 홍대용(洪大容)과 최한기(崔漢綺)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溫泉의 이치 등 해명

그의 주기설에 따르면 인간의 삶과 죽음 그 자체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 소개한 새가 매일 조금씩 높이 날아오르는 이치나 또 온천이 있는 이치도 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원래 불은 뜨겁고 물은 찬 법이다. 그러나 불 가운데는 찬 불은 없는데 어떻게 물 가운데는 뜨거운 물, 즉 온천이 있을 수 있을까? 서화담의 주장으로는 원래 땅은 음(陰)이 주가 되지만 그 가운데에는 빈 틈이 있고 그 사이로 양(陽)이 흐른다. 이 까닭에 땅 속에는 때때로 기가 모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기는 흩어지면 차가워지지만 모이면 더워진다. 그것은 마치 풀을 쌓아 놓으면 저절로 열이 나서 뜨거워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서화담은 온천의 물이 뜨거운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우주는 마치 텅 비어 있다고 생각되기가 쉽다. 하지만 원래부터 우주란 빈 곳이 아니라 기로 충만되어 있다. “끝없는 것이 태허(太虛)이고 시작없는 것이 기(氣)이다. 허(虛)란 다름 아닌 바로 기(氣) 그것이다. 허가 본래 무한이니 기도 또한 무한하다” 그의 글 「이기설(理氣說)」에 나오는 말이다. 그의 이

와 같은 주기론은 중국 송(宋)나라 때에 크게 발달한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나온 것임이 분명한데 그는 특히 송의 사상가 장재(張載, 1020~1077)의 글을 많이 읽고 그 사상을 받아들였다. 장재가 주기론이었던데 비해 그의 후배인 주희(朱熹 즉 朱子, 1130~1200)는 이기를 함께 말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할 만하다. 우리 역사에서는 중국의 장재와 주희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서경덕과 이황으로 나타났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서경덕은 또 장재와 똑같은 시기 송나라의 철학자 소옹(邵雍, 1011~1077)의 영향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소옹은 소요부(邵堯夫) 또는 소강절(邵康節)이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소위 중국의 전통적인 상수학(象數學)을 크게 발전시킨 사상가였다. 중국의 전설시대에 비롯한 소위 하도낙서(河圖洛書)는 황하와 낙수에 서 나온 말과 거북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무늬를 근거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가로 셋, 세로 셋의 배열로 놓였을 때 그 합이 어느 방향으로나 15가 되는 모양을 기본으로 한 무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교묘한 숫자의 배치로부터 사람들은 우주의 수학적 질서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가지기 시작했고 바로 이런 신념이 「주역」(周易)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모으게 했고 또 1년을 만드는 12달과 1달을 만드는 30일, 그리고 그것을 합쳐 나오는 360일이라는 숫자에 모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1紀元을 12만년으로

서경덕은 소옹이 이미 발전시켜 놓은 이런 문제를 이 땅에 도입해서 조선의 상수학에 기초를 마련했다. 그에 의하면 해, 달, 별들의 운동을 기본으로 이 세상에는 4가지의 기본시간단위가 인정된다. 원, 회, 운, 세가 그것인데 그 길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1元=12會, 1會=30運, 1運=12世, 이것을 보면 1년은 12개월이고 1달은 30일, 그리고 1일은 12시라는 사실을 보다 긴 우주적 시간 개념으로 바꿔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1세(世)를 30년으로 잡는다면 1원(元)은 $12 \times 30 \times 12 \times 30$ 년 즉 129600년이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이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세대(世代)란 말과 기원(紀元)이란 표현은 모두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신기원을 말할 때 그것은 새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서경덕의 과학이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기 보다는 자연철학이라 하는 편이 옳다. 실험은커녕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한 자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사변적인 철학적 범위에 머물렀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는 이 땅에 주기론적 자연관을 심어 주어 이울곡을 통해 실학자들에 영향을 주었고 또 상수학을 도입해 이지함(李之函)으로 하여금 「토정비결」(土亭秘訣)을 지을 정신적 터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